

'우리의 외로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이탈리아 파빌리온 전시 '외로움의 지형학'이 진행 중인 동곡미술관 전시장 전경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이탈리아 파빌리온 '외로움의 지형학'

내년 1월31일까지 동곡미술관...伊 레베카 모치아 작가 초청 4개국 현장연구 결과 바탕, 시각·청각·촉각으로 외로움 표현

'외로움'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예술을 통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전시가 마련됐다. 보문복지재단 동곡미술관은 내년 1월31일까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이탈리아 파빌리온 전시 '외로움의 지형학'을 진행한다.

동곡미술관과 이탈리아문화원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주최하는 파빌리온 전시다.

이번 전시는 이탈리아의 떠오르는 신진 여성 작가인 레베카 모치아(사진)를 초청해 현대사회의 외로움을 탐구하는 예술적 시도를 선보인다.

전시는 레베카 모치아가 지난 몇 년간 연구, 창작한 활동을 바탕으로 꾸며졌다. '외로움'이라는 감정 상태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레베카 모치아는 2018년 영국에서 시작된 '외로움부(Ministry of Loneliness)'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사회에서의 외로움과 그에 따른 심리적, 사회적 구조를 탐구해왔다.

작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외로움의 정점을 느꼈다. 파괴적인 세계 정치·경제 체계에 속한 인간으로서, 예술 분야의 일원으로서 그는 진정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에 개인적·집단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영국·미국·일본·한국에서 진행한 현장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외로움을 형성하고 있는지 다각도로 조명한다.

4개국에서 진행한 현장 리서치를 바탕으로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구조에 따라 형성된 외로움을 영상·사진·도자기·아카이브 자료 등을 활용한 설치 작품으로 표현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서울 예술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에서의 외로움에 대한 장소특정적 연구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몰입형 설치 작품을 통해 관람객이 외로움을 시각·청각·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단순히 외로움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관람객이 직접 외로움을 체험하고 성찰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한다.

정소의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 간의 불안정한 관계와 그로 인한 외로움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했다"며 "실현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은 미래지향적인 예술의 신선한 감각을 선사하며, 외로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예술을 통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영현 보문복지재단 동곡미술관 이사장은 "이탈리아와 대한민국의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올해 이번 전시가 문화적 유대와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켜켜이 쌓인 자연의 흔적 미세한 존재들과의 조우

오윤종 작가 초대전 '바람이 분다'...28일까지 전남대 용봉관

'대자연과 무한한 시공간 속 미세한 존재들과의 조우' 오윤종 작가의 17번째 개인전 '바람이 분다'가 오는 28일까지 전남대 용봉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전시에서는 바람에 의해 섞이고 순환되는 과정을 담은 작품 26점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의 작품 속에는 미묘한 선과 강렬한 푸른 색이 주는 에너지가 느껴진다. 부유하는 공기의 흐름, 산과 들판 등 자연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펼쳐진다. 이는 전시 주제와 같이 '바람이 부는' 풍경 그 자체를 나타내는 듯하다.

거대한 자연이 주는 적막함에서 비롯된 막연한 슬픔에 주목하는 작가는 원색 계열의 색채를 사용해 존재의 외로움과 살아있는 것들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한다. 적막하면서도 고요한 세상에 바람이 부는 풍경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서서히 변해가는 자연의 섭리와 감정의 물결을 마주하게 된다.

작가는 "켜켜이 쌓이며 구현되는 이미지들의 조화로운 배치는 숨과 바람의 자리를 만들어낸다. 한없이 작은 존재로서 인간이 느끼는 경외심, 외로움을 이와 대비되는 강렬한 색채로 풀어내고 있다"며 "바람을 타고 올라 부유하는 세상 속 것들이 있는 미세한 존재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부유하는 세상-떠다니다 섞이다 순환하다'

'아트광주' 새로운 길을 찾다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열린 토론회...내일 광주문화재단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아트광주 발전 방안' 열린 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30분 광주 문화재단 4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아트광주의 지난 15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윤익 아트광주24 예술감독과 정종호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의 기조발표로 시작된다. 윤 예술감독은 아트광주가 걸어온 길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 학예연구실장은 아트부산 성공 사례와 함께 글로벌 트렌드, 지역 미술시장의 연계 방안 등을 소개하며 아트광주가 타 아트페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적 성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토론 세션에서는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원 대표가 좌장을 맡아 기획자 조진근(일루와유 달보루 관장), 갤러리 대표 문희영(예술공간 집), 작가 설상호, 컬렉터 고일관(나영산업 이사) 등이 함께 아트광주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아트광주만의 정체성과 차별성 ▲메이저 갤러리 및 전문 컬렉터 유치 전략 ▲지역 미술시장 선순환 구조 구축 ▲컬렉터가 원하는 아트페어의 역할과 기능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아트광주 발전 전략과 실행 방안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열린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아트광주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아트광주가 지역 미술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함께, 행복한 동행'...그들을 위한 힐링콘서트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장애인 근로자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문화향유를 하는 힐링콘서트가 마련됐다.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정찬훈)는 13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행복한 동행-그들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연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콘서트에서는 남구장애인복지관 소속 광주그린오케스트라,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 소속 더원밴드, 플루티스트 백영경, 국악인 임재현, 전자클래식 리브어스양상블, 댄스그룹 잭팟크루, 트로트 가수 은가은 등이 무대에 오른다.

콘서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들이 문화예술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좌석 무료로 운영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좌석 제공 및 자유로운 객석 이동 등 공연 접근성을 높였다.

정찬훈 센터장은 "장애인근로자들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을 하면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 확대와 지속 가능한 근로 생활 유지를 위해 근로 상담, 노무·법률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광주그린오케스트라

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 확대와 지속 가능한 근로 생활 유지를 위해 근로 상담, 노무·법률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